

## 다자주의와 계서체계

— 헤게모니(Hegemony)의 중국적 함의

辛奉受\*

< 목 차 >

1. 문제제기
2. 헤게모니: 억압과 동의를 양면성
3. 다자주의: 명목적 혹은 실질적
  - (1) 헤게모니와 다자주의
  - (2) 다자주의와 중국의 외교전략
4. 계서체계: 왕도의 질서
  - (1) 왕도와 계서체계
  - (2) 계서체계와 중국의 외교전략
5. 결론: 동의에 의한 계서체계

### 1. 문제제기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경제발전을 통해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구축해가고 있으며, 이런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국제질서가 변화될 것이라는 연구자들의 다양한 분석결과들도 나오고 있다.<sup>1)</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권(hegemony)<sup>2)</sup>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회주의 중국이 일관되게 견지해 온 입장이며, 최근

\* 高麗大學校 中國學研究所 研究教授.

1) Joshua Ramo, “The Beijing Consensus”, *The Foreign Policy Centre*, 2004; Giovanni Arrighi, *Adam Smith in Beijing* (New York: Verso, 2007)

2) 이 글에서 ‘패권’은 모두 ‘헤게모니(hegemony)’라는 영어발음으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또 ‘hegemon’은 ‘헤게모니국가’로 번역하여 사용한다. 단 ‘패권’이라는 용어는 중국어를 번역한 경우이거나, 헤게모니가 물리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를 강조할 경우에 한정해 사용한다.

까지 중국은 헤게모니국가(hegemon)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대외에 공언해 오고 있다.<sup>3)</sup>

그러면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 할 때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헤게모니를 추구하지 않고도 아시아지역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의 위상에 맞는 역할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는 국제사회에서 보여지는 중국의 전략적 행위들에 대한 함의를 파악하지 않고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런 측면에서 존스톤(A. I. Johnston)이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중국의 전략문화를 분석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중국의 전략적 행위에 대한 함의를 분석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는 안보위협을 해소하는 중국의 전략적 선호를 상징적인 것과 조작적인 것으로 분류하고, 이 두 가지 요소 가운데 전쟁 혹은 억압적인 방식을 통해 위협을 해소하는 조작적 전략이 지배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sup>4)</sup> 즉 중국의 상징적 전략문화는 정치적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될 뿐이라는 것이다.

이런 분석결과에 따르면 중국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패권(hegemony)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수사적 표현에 불과하고, 실제 중국은 안보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전쟁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제사회에서 헤게모니를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그는 위협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중국이 억압적, 물리적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사회화를 통해 전승돼 온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존스톤이 중국의 전략문화를 분석하기 위해 대상으로 삼은 것은 명나라시기로 근대시기 중국의 경험을 도외시키고 있다. 중국은 아편전쟁 이후

3) 胡錦濤, “高舉中國特色社會主義偉大旗幟, 爲奪取全面建設小康社會新勝利而奮鬥: 在中國共產黨第十七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 2007년10월15일.

<http://cpc.people.com.cn/GB/64162/64168/106155/106156/6430009.html>. 검색일 2007년11월10일. 헤게모니에 대한 현실주의적 정의는 세계 혹은 특정 지역, 예를 들어 유럽, 동아시아 등을 지배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지배적 지위를 갖고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게 군사력과 같은 물리력의 기준에 의해 평가된다. John J.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New York: W. W. Norton and Company, 2001), pp.40-46.

4) Alastair Iain Johnston, *Cultural Realism: Strategic Culture and Grand Strategy in Chinese History*(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p.249.

서구로부터 주권을 침탈당한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경험에서 비롯된 전략적 특징에 대해 존스턴은 소홀히 다루고 있다.<sup>5)</sup> 또한 존스턴이 중국의 조작적, 억압적 전략문화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선택한 명나라시대의 대외환경은 오늘날 국제환경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주요한 차이는 작금의 국제환경은 권력자원 가운데 군사력에 의존한 패권행사가 일정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sup>6)</sup> 이는 강대국 간의 분쟁에서 군사력을 사용할 경우 핵전쟁을 피할 수 없는 환경적 조건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이 글은 중국이 근대시기 겪었던 역사적 경험과 중국의 전략문화가 갖고 있는 특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중국이 추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헤게모니의 중국적 함의를 도출하여, 중국의 헤게모니전략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최근 중국의 대외관계에서 주요한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는 다자주의 전략을 살펴본다. 다자주의는 참가 국가들의 주권존중을 전제로 동의와 협상을 기초로 하고 있다. 중국은 ‘헤게모니(hegemony)’를 ‘패권(霸權)’으로 번역하고 있으며, 패권은 무력에 의존하여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런 패권과 반대되는 개념은 왕권(王權) 혹은 왕도(王道)인데, 이는 다른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여 동의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중국은 헤게모니를 패권으로 번역하고, 왕권과 분명하게 구분하여 사용한다. 그리고 중국은 왕권에 기초하여 다른 국가들의 동의에 기초한 권력행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물론 존스턴에 따르면, 이는 단순히 수사적이고,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할 뿐이지만, 근대시기 중국의 역사적 경험은 다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최근 중국이 대외관계에서 다른 국가의 주권존중에 기초한 다자주의전략을 선호하고 있는데, 이는 이런 역사적 경험과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이 글은 중국의 이런 다자주의 전략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다른 국가의 동의를 통해 국제관계에서 계서적인 질서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중국의 전략문화에서 왕도는 “계서체계 하에서 도덕의 중요성을 강조<sup>7)</sup>”하고 있다. 따라서 왕도와 계서체계는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헤게모니: 억압과 동意的 양면성

국제관계에서 헤게모니는 다양하게 개념화되고 있지만, 하나의 강대국이 그 체제 내의 나머지 국가들을 통제하거나 지배하는 상황으로, 일정 기간 동안 국제관계를 관리할 규칙과 제도를 형성하고 지배(domination)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sup>8)</sup> 그리고 현실주의자들은 이런 지배적 지위를 갖고 있는지 여부를 주로 군사력과 같은 물리적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sup>9)</sup> 이는 헤게모니 개념에 대해 저작권을 갖고 있는 그람시와는 차이를 내포하고 있다. 즉 헤게모니의 그람시적 개념은 억압(coercion)과 동의(consent)의 양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단순히 물리적 기준으로 헤게모니를 설명하지 않는다.<sup>10)</sup> 헤게모니를 물리적 능력으로 평가하는 시각은 자연스럽게 헤게모니의 동의적인 측면보다 억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게 되고, 이는 헤게모니의 그람시적 해석에 있어 핵심적이라 할 수 있는 동의적인 측면을 소홀히 취급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sup>11)</sup>

5) 이와 관련 Andrew Scobell은 “중국의 전략적 경향을 호전적 혹은 반전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Andrew Scobell, “China and Strategic Culture”, *The Strategic Studies Institute* May 2002, p.v.

<http://www.carlisle.army.mil/ssi/pdf/PUB60.pdf>. 검색일 2005년8월31일.

6) 군사력의 한계에 대해서는 Robert Keohane and Joseph Nye, *Power and Interdependence: World Politics in Transition*(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77)을 참조.

7) 門洪華, 《構建中國大戰略的框架: 國家實力, 戰略觀念與國際制度》(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5), p.177.

8) Robert Gilpin,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p.29: 헤게모니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김유은, <국제정치 분석개념으로서의 패권: 재검토>, 《한국정치학회보》Vol.26, No.3, 1993을 참조.

9) John J.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New York: W. W. Norton and Company, 2001), p.40-46.

10) 김진영, <세계화(Globalization)와 헤게모니>, 《한국정치학회보》Vol.32, No.1, 1999, p.341.

실제 권력은 물리적 자원을 기반으로 한 경성권력(hard power)과 문화, 이데올로기, 제도 등과 같은 연성권력(soft power)으로 나눌 수 있다.<sup>12)</sup> 그러나 이런 분류는 권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한데, 왜냐하면 권력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의 행위를 변화시킬 의도나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권력자원을 사용해 권력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는 권력이 행사되는 성질과 이로 인해 획득한 헤게모니의 특징을 규정하게 된다.

아이켄베리와 쿠프찬(Ikenberry and Kupchan)에 따르면 헤게모니국가(hegemon)는 국제체계 내에서 다른 국가의 엘리트들이 가진 실질적인 신념을 바꾸거나 물질적 동기를 조작하여 권력을 행사한다고 설명한다. 즉 권력은 물질적인 동기(material incentives)의 조작과 실질적인 신념(substantive beliefs)의 차원에서 행사되며, 전자는 물질적 자원을 조작하는 억압적 방식을 통해 권력이 행사되고, 후자는 물질적인 자원 보다 주변국 지도자들의 사회화(socialization)과정을 통해 권력이 행사된다. 또 후자의 경우 주변국 엘리트들은 헤게모니국가에 의해 강조되는 규범을 내재화하게 되고, 결국 주변국의 순응(compliance)을 통해 권력이 행사되는 것이다.<sup>13)</sup> 이는 연성권력에 대한 나이(J. Nye)의 개념정의에서도 비슷한 맥락을 찾을 수 있는데, 그는 연성권

력을 “억압(coersion)과 지불(payment)보다는 매력(attraction)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sup>14)</sup>”이라고 설명했다. 즉 군사력으로 표현되는 무력에 의존하는 억압과 경제력으로 표현되는 물질적 보상의 지불 등과 같은 방식이 아닌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이 의도하는 것을 추구하게 만들 수 있는 흡인력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헤게모니와 권력자원, 권력에 대한 이런 개념적 구분이 이루어지는 지점에서 중국이 해석하는 헤게모니의 의미를 찾아 볼 수 있다. 즉 왕지스(王緝思)는 “중국인들에게 패권(霸權)의 의미는 일종의 행위로서 매우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반면, 영어권에서 사용하는 헤게모니는 부정적인 의미가 없으며, 한 국가나 국가집단 혹은 정권이 일반대중을 뛰어넘는 우월적 지위와 능력을 가진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sup>15)</sup>고 설명한다. 즉 헤게모니의 중국적 의미는 매우 부정적인 것이며, 지위를 나타내기보다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중국적 의미의 헤게모니는 억압적 권력자원을 동원해 권력을 행사하는 행위와 이를 통해 획득한 지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에 주안을 두고 있다. 즉, 어떤 권력자원을 사용하여 권력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획득한 권력의 성질이 패권 혹은 왕권(王權)으로 구분되는 것이다.

맹자는 “실력(實力)에 의지하면서 인의를 가장하는 패(霸)는 반드시 대국(大國)을 기초로 해야 하지만, 도덕에 의지해 인정을 실시하여 왕도를 실천하는 것은 반드시 대국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패도(霸道)와 왕도(王道)를 구분하고, “세력에 의지해 다른 사람을 정복할 경우, 그는 내심으로 복종하지 않고 힘이 부족한 것으로 여긴다. 도덕에 의지할 경우, 그는 진심으로 복종하게 된다.”<sup>16)</sup>고 강조했다. 맹자에 따르면, 실력과 세력, 즉 물리적 억압을 통해 복종을 강요하는 패도와는 달리, 도덕과 인의, 즉 동의를 기반으로 하는 왕도를

11) Paul G. Buchanan, “Note sulla ‘Escuela Italiana’: Using Gramsci in the Current International Moment”, *Contemporary Politics*, Vol.6, No.2, 2000, p.103. 부캐넌은 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은 체제전환의 시기(국내 혹은 국제)에 적용할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p.104.

12) Joseph, Nye, “Soft Power”, *Foreign Policy*, Fall 1990, p.154. 머스탄두노는 헤게모니를 구성하는 요소로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Michael Mastanduno, “Incomplete Hegemony: The United States and Security Order in Asia”, in Muthiah Alagappa (ed.), *Asian Security Order: Instrumental and Normative Features*, 2003, p.143.

13) G. John Ikenberry and Charles A. Kupchan, “Socialization and Hegemonic Power”,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4, No.3, Summer 1990, p.283. 바넷과 듀발은 권력이 표현되는 방식과 관련 상호작용적인 형태와 구성적인 형태로 구분하고, 전자는 다른 행위자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에 의해, 후자는 행위자의 선정과 그들의 능력을 규정하는 사회적 관계에 의해 구성적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설명한다. Michael Barnett and Raymond Duvall, “Power in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59, No.1, winter 2005, p.46.

14) Joseph Nye,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New York: PublicAffairs, 2004), p.x.

15) 王緝思, <美國霸權的邏輯>, 《美國研究》, 第3期(2003年), p.8.

16) 孟子, <公孫丑章句上>, 《孟子》(太原: 山西古籍出版社, 1999), p.56.

실천할 경우 상대가 진심으로 복종하게 된다. 중국인들은 이처럼 권력을 억압적으로 행사하는 때도, 권력을 동의적으로 행사하는 왕도를 각각 구분해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지위 보다 행위에 초점을 맞춘 헤게모니의 중국적 함의는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나 우월적 지위를 통해 억압적 권력자원을 동원하는 것을 의미하며, 중국이 추구하지 않는 것은 이런 억압적 의미의 권력이나 헤게모니임을 알 수 있다. 즉 헤게모니에 대한 중국적 해석은 경성 혹은 물질적 권력자원을 사용하여 권력을 장악하고, 이렇게 장악한 권력을 행사하여 헤게모니를 사용 혹은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헤게모니의 동의적인 측면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억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헤게모니의 중국적 해석은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미국을 패권주의로 비난하면서, 자신은 아시아지역에서 동의적인 방식으로 권력을 사용하면서 이 지역에서 지배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찾아 볼 수 있다.

중국이 주변국의 순응과 동의를 기반으로 지배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변국의 엘리트들을 자신들의 규범으로 사회화할 수 있어야 한다. 중국의 이런 사회화 전략은 다자주의에서 구현되고 있다. 중국은 다자주의를 통해 기존의 규범을 준수하는 한편 자신의 규범을 확산해 나가고 있는데, 이는 아세안국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확인될 수 있다. 즉 아세안국가들의 규범을 존중해 이를 사회화하는 한편 자신의 규범을 아세안국가들이 사회화하도록 요구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사회화 과정은 일방적이 아니라 상호적이지만, 권력을 가진 국가가 제시하는 규범은 상대적으로 구속력이 강하기 때문에 다자주의를 통한 사회화는 중국의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 3. 다자주의: 명목적 혹은 실질적

#### (1) 헤게모니와 다자주의

중국의 부상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관심은 한 때 '봉쇄 혹은 관여(containment or engagement)'의 문제가 핵심이었다.<sup>17)</sup> 최근에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벗어나 중국의 부상이 향후국제질서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는 현상을 목도할 수 있다.<sup>18)</sup> 전자의 문제의식이 후자로의 전환을 촉발시킨 것은 분명하지만, 이런 관심 이동은 미국 편향적인 연구경향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자 중국의 지속적인 부상이 가져다 준 결과물이기도 하다.<sup>19)</sup>

중국의 부상이 국제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쟁의 중심에는 현상유지(status quo)론과 수정주의(revisionist)론이 있다. 수정주의론과 관련해 주목할 점은 라모(J. C. Ramo)의 시각인데, 그는 중국의 부상은 권력과 발전에 관한 새로운 흐름을 소개함으로써 국제질서를 이미 재편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미국이 스스로 최선이라고 판단하는 것을 다른 국가에 강요하는 것이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라면, '베이징 컨센서스(Beijing consensus)'은 다른 국가들에게 단지 발전하는 방법을 제시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단 하나의 강력한 권력중심을 가진 세계 속에서 자신들의 생활방식과 정치적 선택을 보호하고, 독립적으로 국제사회와 조화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 그는 베이징 컨센서스에 대한 부연설명을 통해 "베이징 컨센서스는 공정하고 평화적인 고도성장을 추구하려는 의

17) David Shambaugh, "Containment or Engagement of China? Calculating Beijing's Responses", *International Security*, Vol.21, No.2, Autumn 1996.

18) Alastair Ian Johnston, "Is China a Status Quo Power?", *International Security*, Vol.27, No.4, Spring 2003.

19) 물론 두 가지 관심이 중첩돼 나타나기도 했지만, 이를 시계열적으로 분류한 것은 중국의 부상이 갖는 시간적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지에 의해 형성된 발전법칙이며, 하나의 독트린으로 분류하기 힘들 정도로 유연성을 갖고 있고, 사유화와 자유무역과 같은 전통적 관념을 지향하고 있다.”<sup>20)</sup> 고 강조한다.

중국적 인식이 점차 국제사회에서 그 영향권을 확대하고 있다는 라모의 지적은 조금은 성급한 전망일 수도 있지만, 중국이 억압적, 물리적 방식이 아닌 동의적 방식으로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원칙을 확산하려는 움직임은 여러 분야에서 감지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다자주의를 통해 중국이 동의적 전략문화를 확산하려는 노력은 주목할 만하다.

실제 다자주의의 주요한 원칙인, 일반성과 불가분성, 포괄적 상호성 등은 협상과 동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러기(J. G. Ruggi)에 따르면, 다자주의는 명목적 차원과 실질적 차원으로 구분되는데, 명목적 차원의 다자주의가 특정 원칙에 따르는 셋 이상의 국가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라면, 실질적 차원에서 다자주의는 행위의 ‘일반화된 원칙’을 기반으로 셋 이상의 국가 관계를 규율하는 제도적인 틀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일반화된 원칙’이란 러기에 따르면 구체적인 사건에서 나타나는 전략적 중요성 혹은 특정 집단의 이해를 배제한 채 일련의 행위들을 규율하는 내용들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는 다자주의에 대한 이런 정의를 기반으로 ‘불가분성’과 ‘포괄적 상호성’도 실질적 다자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로 유추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불가분성’은 행위가 가져오는 손실과 이익을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것을 말하며, ‘포괄적 상호성’은 구성원들이 시간적으로 장기적, 사안별로 포괄적으로 대략적인 이익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sup>21)</sup> 이처럼 다자주의는 명목적이든 실질적이든 참가국가들 간의 협상을 통한 동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협상과 동의를 배제된 다자주의는 개념적으로 성립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다자주의에 대한 중국의 인식변화는 90년대 들어 충분히 감지될 수 있는 사정거리에 포착됐는데,<sup>22)</sup> 이러한 대외전략의 변화는 다자주의를 통해 중국이

20) Joshua Cooper Ramo, *The Beijing Consensus*, pp.2-4.

21) John Gerard Ruggie, "Multilateralism: the Anatomy of an Institu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46, No.3, Summer 1992, p.566.

없을 것 보다 얻는 것이 많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국이 다자주의를 통해 얻고자 하는 전략적 목적과 관련, 허기스(Christopher Hughes)는 “다자주의는 미국 혹은 지역강대국인 인도 및 일본과의 마찰을 피하면서 중국이 자신의 지역적 권력을 증대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다.”<sup>23)</sup>고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아시아지역에서 관철되고 있는 미국적 헤게모니와의 마찰을 줄이면서 아시아지역에서 헤게모니를 확대할 수 있는 중국의 유일한 대안은 미국이 이 지역에서 추구하는 양자관계를 줄이고, 이들 지역의 국제적 규범을 지키면서 다수 국가의 지지를 획득해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위상을 획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중국은 억압적 헤게모니에 의지하는 미국의 일방주의를 못마땅해 하는 이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대화와 설득을 통해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다자주의를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다자주의적 전략은 중국이 이 지역에서 헤게모니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되풀이 강조하는 것 보다 중국위협론에 대한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도 하다.<sup>24)</sup>

실제 중국이 다자주의 정책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미국의 패권주의에서 찾고 있는 왕이저우(王逸舟)는 “미국은 냉전 이후 패권적 행보와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 그리고 강대국과의 관계를 처리하는데 있어 미국의 패도적 사고방식과 일방주의 등은 강대국관계를 긴장시켰으며, 국제적인 전략적 판세의 균형을 깨뜨려 불안정한 정세를 야기했다. 따라서 이런 미국의 패권주의적 압력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은 다자주의적 외교통로를 발전시켜 세계적으로 전략적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sup>25)</sup>고 주장하고 있다. 다자주의는 중국이 강대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왕이저우

22) Avery Goldstein, "The Diplomatic Face of China's Grand Strategy: A Rising Power's Emerging Choice", *China Quarterly*, No.168, December 2001.

23) Christopher R. Hughes, "Nationalism and Multilateralism in Chinese Foreign Policy: Implications for Southeast Asia", *The Public Review*, Vol.18, No.1, March 2005, p.119.

24) Wang Jianwei, "Chinese Perspectives on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Asian Perspective*, Vol.22, No.3 (1998), p.118.

25) 王逸舟, 《全球政治和中國外交》(北京: 世界知識出版社, 2003), 274-275쪽.

는 그 이유로 겸허하고 신중한 외교스타일은 국제적으로 바람직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도광양晦(韜光養晦)와 유소작위(有所作爲)는 이런 전략의 일환이라고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자신을 내세우고, 맹목적으로 자신의 영역을 확대하고, 심지어 경제발전이라는 우선적인 목표를 망각하고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대항하는 것이 강대국외교라고 생각하는 시각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며, 중국은 주변 국가들과 상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의 각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원원전략이 중국에 필요하다고 주장한다.<sup>26)</sup>

이처럼 다자주의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태도변화와 관련해 반드시 고려해야 될 점은 중국적 함의를 가진 동의적 헤게모니를 행사하는데 있어 다자주의는 가장 좋은 무대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다자주의가 규범적인 성격이 강해 국제정치 현실에 적용할 경우 공허한 개념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sup>27)</sup> 협상과 동의를 전략적 기반으로 삼고 있는 중국적 헤게모니의 함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자주의에 대한 이해는 빼놓을 수 없다.

## (2) 다자주의와 중국의 외교전략

중국이 전략적으로 다자주의를 수용하게 된 시기와 관련 일부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지만, 중국은 1990년대 중반을 계기로 다자주의에 대해 적극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변화를 보인다.<sup>28)</sup> 실제 골드스타인(Avery Goldstein)은 중국이 SCO(Shanghai Cooperative Organization)를 창설하고, CTBT(Comprehensive

26) 王逸舟, 《全球政治和中國外交》, p.276.

27) 신옥희는 다자주의적 질서가 헤게모니에 의해 규정된다는 입장과 해당 국가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이해관계의 다원적인 조정의 결과로 질서가 형성된다는 두 가지 입장을 구분하고 전자를 다자주의의 현실적 형태, 후자를 이상적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신옥희, <다자주의의 동아시아 적용의 문제>, 《한국과 국제정치》, Vol.13, No.1, 1997, p.249.

28) 허기스(Christopher Hughes)는 중국이 다자주의를 수용하기 시작한 시기를 ADB(Asian Development Bank)에 가입한 1986년을 기점으로 잡고 있다. Christopher R. Hughes, 《Nationalism and Multilateralism in Chinese Foreign Policy》, p.121.

Test Ban Treaty)에 서명했던 해인 1996년을 그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sup>29)</sup>

SCO의 설립과 CTBT에 참가하면서 다자적 협상에 적극 참여하기 시작한 중국은 대외관계를 다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점차 강화하게 되는데, Kuik Cheng-Chwee는 다자주의에 대한 중국의 태도변화 과정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첫 단계는 1990년대 초반부터 1995년까지 중국이 다자주의에 수동적으로 참여한 시기로 중국은 아세안 국가들의 안보협의체인 ARF(ASEAN Regional Forum)에 가입하지만, 미국의 영향력과 타이완문제, 남사군도를 둘러싼 영토분쟁, 군사활동의 투명성 등으로 인해 그 활동은 상당히 유보적이었다. 두 번째 단계인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중국은 다자적 협상에 적극 참여하는 자세를 보였는데, 앞선 언급한 SCO의 창설과 CTBT에 가입한 것 외에 이 기간 동안 APT(ASEAN Plus Three)에 참가하는 등 첫 단계에서 보여주었던 수동적인 자세와 달리 이 시기에는 능동적인 자세를 보였다. 세 번째 단계인 2000년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의제를 제안하는 단계로 이 시기에 중국은 ACFTA(ASEAN-China Free Trade Area)를 제안하는 등 다자적 협상의 주체로 적극 나서게 된다.<sup>30)</sup>

다자주의에 대한 중국의 이런 입장변화와 관련 주목할 점은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의 경우, 특히 ARF의 활동과 관련, 중국은 '신안보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냉전시대의 군사대결을 청산하고, 주권존중과 상호불가침, 불가침, 호혜평등, 평화공존5원칙 등을 기반으로 국가 간의 관계를 수립하는 것으로 요약된다.<sup>31)</sup> 중국이 제시한 신안보관은 아세안의 규범을

29) Avery Goldstein, "The Diplomatic Face of China's Grand Strategy", p.843. 과거 중국이 다자적 협상에 적극 참여하지 않고, 다자주의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원인과 관련, 골드스타인은 "중국이 판단하기에 아태지역의 다자적 협상기구들은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조직된 것이며, 이런 활동은 미국과 일본에 의해 지원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한다. Avery Goldstein, "The Diplomatic Face of China's Grand Strategy", p.842.

30) Kuik Cheng-Chwee, "Multilateralism in China's ASEAN Policy: Its Evolution, Characteristics, and Aspiration", *Contemporary Southeast Asia*, Vol.27, No.1, 2005, pp.105-111.

31) 錢其琛, <發展合作才能獲得和平與繁榮>, 《人民日報》, 1997년 12월 6일.

자신의 규범으로 사회화한 사례로 볼 수 있는데, 아세안의 규범은 크게 두 가지로 다른 국가의 주권문제에 대한 불간섭, 국가 간의 문제해결을 위한 무력사용금지 등을 들 수 있다.<sup>32)</sup> 물론 주권존중과 상호불가침, 평화적 문제해결 등은 건국 이후 중국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외교정책으로, 그동안 수사적인 표현에 머물러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규범과 아세안의 규범을 서로 접합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단계의 경우, 중국이 다자적 협상의 주체로 나서 적극적으로 의제를 제안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규범을 창출하려는 노력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즉 중국은 명목적 다자주의에서 실질적 다자주의로 접근해가고 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의제설정을 통해 국제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기존의 규범에 대한 순응과 새로운 규범의 제안이라는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에반스(Thammy Evans)는 중국이 ARF에 참가하는 과정을 분석하면서 중국의 위상은 다자적 안보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협상의 진전속도를 늦추는 제동장치의 역할에서 자신의 의제와 우선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중국은 이러한 태도전환을 통해 ARF를 자신 앞에 펼쳐진 안보문제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내재화하는 동시에 이를 중국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게 됐다.<sup>33)</sup> 이처럼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의제를 제안하고 있다는 사실은 동의를 통한 헤게모니확보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즉 기존의 국제규범을 단순히 수용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의제와 규범을 제시하여 자신의 규칙을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이는 곧 중국이 아시아지역에서 헤게모니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 된다. 협상과 동의를 전제로 하는 다자주의에 대한 중국의 이런 적극

적인 태도변화와 관련, 게리슨(Jean A. Garrison)은 “가까운 장래에 중국은 동의를 기반으로 한 국제관계를 실천할 것이다.”<sup>34)</sup>고 전망하고 있는데, 이런 동의를 기반으로 한 중국의 전략적 행위는 이미 실천되고 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규범의 제시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이 다자주의를 통해 국제적 규범에 적응하는 과정을 분석한 왕홍잉(H. Wang)은 명목적 다자주의에서 실질적 다자주의로 발전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에 조심스런 자세로 전망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중국은 경제, 안보 분야에서 지역적 다자 협상에 점차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며, 다자 협력의 주요한 몇 가지 원칙을 지지하기도 하지만, 실질적 다자주의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sup>35)</sup> 이러한 실례로 왕홍잉은 경제분야의 경우, 1991년 APEC회원국으로 참가하는 등 다자적 국제기구에 참여해 이들 기구의 주요한 원칙을 지지하고 있지만, 일부 원칙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안보분야에서는 ARF에 1995년 가입하고, 지역안보 협력의 세 단계 구상 가운데 중국은 첫 단계인 신뢰구축에는 동의했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인 예방외교와 갈등해결전략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왕홍잉은 중국이 다자주의의 규범을 사회화하고 있다든지 향후 할 것으로 전망되는 증거는 거의 없는 상태이지만, 중국의 권력이 확대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더욱 협력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추세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sup>36)</sup>

왕홍잉의 이런 조심스런 분석과는 달리 Kuik Cheng-Chwee는 아세안 국가들과 중국이 실질적 다자주의를 실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그는 ACFTA(ASEAN-China Free Trade Area)는 중국이 아세안국가들에게 다른

32) Samuel Sharpe, “An ASEAN Way to Security Cooperation in Southeast Asia?”, *The Pacific Review*, Vol.16, No.2, 2003, p.232.

33) Thammy Evans, “The PRC’s Relationship with ASEAN Regional Forum”, *Modern Asian Studies*, Vol.37, No.3, 2003, pp.753, 755.

34) Jean A. Garrison, “China’s Prudent Cultivation of ‘soft’ Power and Implications for U. S. Policy in East Asia”, *Asian Affairs: An America Review*, Vol.32, No.1, Spring 2005, p.25.

35) 왕젠웨이(Wang Jianwei)는 경제분야와 안보분야를 분리해 중국은 경제분야의 경우 안보 분야보다 다자주의에 훨씬 적극적이라고 주장한다. Jianwei Wang, “Chinese Perspectives on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p.116.

36) Hongying Wang, “Multilateralism in Chinese Foreign Policy: the Limits of Socialization”, *Asian Survey*, Vol.40, No.3, May-June, 2000, p.490.

WTO회원국들 보다 먼저 중국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우를 하기로 양보했다고 강조하고, 이는 중국이 실질적 다자주의원칙 가운데 “포괄적 상호성”을 상당한 수준까지 실천하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다자적 제도에서 중국은 단기적인 양보가 장기적으로 더 큰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든지, 혹은 한 지역에서 현재의 희생이 장래에 다른 지역에서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포괄적 상호성’을 추구하고 있다.<sup>37)</sup> 이처럼 중국의 대외정책이 명목적 다자주의에서 실질적 다자주의로 전환할 수 있는 배경에는 경제성장에서 비롯된 자신감이 그 배경이 되고 있으며, 이런 자신감은 다자주의를 통해 자신의 규범을 확산해 나가는 데서도 찾을 수 있다.

특히 웨스트팔렌적 주권개념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의 신안보관은 아세안의 규범을 사회화하는 동시에 자신의 규범을 확산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상대방 국가의 내정에 대한 상호불간섭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의 주권개념은 대만과 티베트문제를 국내문제로 취급하면서 이들 문제에 대한 외국의 간섭을 주권침해로 간주해 중국의 핵심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외견상 상호평등을 핵심으로 하는 이런 제안이 아세안의 원칙과 완전히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sup>38)</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대국의 영향력을 배제하자는 중국의 신안보관에 입각한 주권개념은 아시아지역에서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sup>39)</sup> 실제, 중국의 신안보관에 입각한 주권개념은 6자회담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는데, 북한의 주권을 존중해 온 중국은 북한체제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미국과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이런 태도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주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에 기초하고 있다. 이런 중국의 태도는 일부 논란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또 2005년 5월에 발생한 우즈베키스탄의 반정부테모대를 무력으로 진압한 유혈사태에도 불구하고 후진타오는 이슬람 카리모프(Islam A. Karimo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예정대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후진타오는 분리주의자와 종교적 극단주의, 테러리즘에 맞서 우즈베키스탄이 “국가독립과 주권, 영토통합을 위해 벌이는 노력을 지지한다.”<sup>40)</sup>고 밝혔다. 물론 이런 중국의 태도는 다자주의적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 보다 석유자원 확보 등 다른 여러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주권에 대한 중국의 이런 자세는 전략적인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제사회의 규범을 사회화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주권개념도 조금씩 변화해 온 것은 사실이다. 주권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국제적 규범에 대항하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특정분야의 경우, 예를 들어 인도적 차원의 개입에 대해서는 완화된 주권개념을 적용하고 있다.<sup>41)</sup> 또 유럽연합의 출범을 지켜보면서 양보할 수 있는 주권이라는 상대적 주권개념을 수용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동의에 의한 헤게모니를 추구하기 위해 기존의 규범을 사회화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을 잘 설명해 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정치적 문제에 대한 불간섭이라는 원칙은 지속적으로 견지해 오고 있으며, 이런 내정불간섭과 국가주권을 강조하는 중국적 다자주의는 아시아지역에서 상당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37) Kuik Cheng-Chwee, “Multilateralism in China’s ASEAN Policy”, p.112.

38) Christopher R. Hughes, “Nationalism and Multilateralism in Chinese Foreign Policy: Implications for Southeast Asia”, p.129.

39) Moon, Chung-in and Chaesung Chun, “Sovereignty: Dominance of the Westphalian Concept and Implications for Regional Security”, in Muthiah Alagappa (ed.), *Asian Security Order: Instrumental and Normative Features*, 2003, p.107.

40) 《新華社》, 2005년5월25일. <http://politics.people.com.cn/GB/1024/3416829.html> 검색일 2005년7월22일.

41) Allen Carlson, “Helping to Keep the Peace(Albeit Reluctantly): China’s Recent Stance on Sovereignty and Multilateral Intervention”, *Pacific Affairs*, Vol.77, No.1, Spring 2004, p.11.



#### 4. 계서체계: 왕도의 질서

##### (1) 왕도와 계서체계

계서체계는 국제관계에서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현실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왜냐하면 계서체계의 인정은 하위국가들을 곤란하게 만들 것이며, 강대국들의 제국적 기획(project)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42)</sup>

현실주의의 일부이론가들은 국제관계에 있어 계서체계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들은 국제질서는 무정부상태이며, 그 구성원들은 약자와 강자로 구성돼 있고, 계서적 질서는 강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실주의이론 가운데 세력전이이론은 이런 강약의 차이에 의해 국제질서는 피라미드 형태의 계서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피라미드의 제일 상층에는 지배국가(dominant nation), 그 밑에는 몇 개의 강대국들(great powers), 중등국가들(middle powers), 약소국가들(small powers), 식민지국가들(colonies)이 순서대로 위계질서를 구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오간스키(A. F. K. Organski)는 국제체계 내의 최강자인 지배국가는 국제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하위체계에 있는 강대국 가운데 하나가 산업화를 통해 국력을 급신장시켜 헤게모니에 대한 도전세력으로 성장할 때 국제체제의 위기가 도래하게 되고,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한다.<sup>43)</sup> 오간스키의 이런 계서체계모델을 발전시킨 램키(Douglas Lemke)는 복수의 계서체계모델(multiple hierarchy model)을 사용하여 지역체계에 있어서도 계서체계가 작동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오간스키가 설명한 세계적 단위의 계서체계와 유사하게 하위체계

(sub-system)에서도 지역적 계서체계(local hierarchy)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이런 지역적 계서체계의 한 사례로 램키는 지배국가인 중국을 중심으로 일본, 몽고, 북한, 한국, 타이완을 포함하는 동아시아(East Asia)지역을 들고 있다.<sup>44)</sup>

에반스는 국제질서가 계서체계로 형성돼 있다는 이런 현실주의 이론가들의 견해를 수용하면서도, 중국의 외교정책을 분석할 때는 현실주의 이론에서 주장하듯이 세계질서는 무정부상태가 아니라, 계서적 체계를 갖고 있다는 중화권(Sinic Zone Theory)이론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중국의 세계관은 본질적으로 서양의 세계관과 다른 것이며, 서구적 관점에서 이론화된 현실주의(신현실주의)와 자유주의(체계이론)를 중국에 적용해 중국의 대외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다.<sup>45)</sup>

이런 세계관과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 중국은 아시아지역에서 지배국가적 지위를 유지해 왔다. 중국이 이런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지정학적 요인은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인구 및 국토면적, 국민총생산액, 국제기구에서 맡은 역할 등이 그것이다.<sup>46)</sup> 중국의 이런 지배국가적 지위는 아시아지역의 안정에 기여했다는 주장은 강(David C. Kang)에 의해 제기돼 논쟁점을 제공하고 있다. 강은 서구학계의 주류는 아시아의 안보질서와 관련해 비판적인 전망을 견지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의 부상은 이 지역의 안보질서를 위협할 것으로

44) Douglas Lemke, *Regions of War and Peace*(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pp.48-66, p.86.

45) Thammy Evans, "The PRC's Relationship with ASEAN Regional Forum", p. 761; 네스(Peter Van Ness)도 세계정치는 현실주의가 가설로 삼고 있는 무정부상태가 아니라 헤게모니적 질서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한다. Peter Van Ness, "Hegemony, not Anarchy: Why China and Japan are not Balancing US Unipolar Powe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2001.

http://rspas.anu.edu.au/ir/working%20papers/01-4.pdf, 검색일 2005년10월25일.  
46) 王逸舟, 《全球政治和中國外交》, p.190-201. 이와는 달리 머스탕두노는 중국이 이 지역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해 계서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Michael Mastanduno, "Incomplete Hegemony", p.164. 한편 강대국의 능력과 관련 왈츠(Waltz)는 인구, 영토면적, 부존자원, 경제력, 군사력, 정치적 안정, 경쟁력 등을 들고 있다. Kenneth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Boston: McGraw-Hill, 1979), p.131.

42) David A. Lake, "The New Sovereign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Vol.5, NO.3, 2003, p.321.

43) A. F. K. Organski, *World Politics*(New York: Alfred A. Knopf, 1961), p.326.

판단하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중국이 강할 때 동북아시아 지역은 안정적이었으며, 오히려 중국이 약할 때 이 지역에 불안정을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동아시아의 지역관계는 역사적으로 계서적이었으며, 19세기 서구의 권력이 개입하기 이전까지 서구의 지역관계보다 더욱 평화적이고 안정적이었다고 주장한다.<sup>47)</sup> 다시 말해 아시아지역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계서체계로 인해 중국의 부상에 대해 균형(balancing)을 잡으려고 시도하기보다 편승(bandwagoning)하려는 경향이 강해 갈등과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적다는 것이다.

아시아지역은 강한 중국으로 인해 계서적 질서가 형성되고, 이를 통해 안정될 것이라는 Kang의 주장에 대해 아차리아(Amitav Acharya)는 과거 아시아의 계서적 질서가 평화적이었다고 믿을 이유는 없으며, 과거의 경험에 기반해 향후 아시아의 질서가 자연스럽게 계서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sup>48)</sup> 그는 아시아지역은 공유된 지역규범과 강화되는 경제적 상호의존, 증가하는 제도적 연계를 통해 안보문제를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Kang이 주장하는 중국적 계서체계는 '지배국가와 종속국가가 상호 간에 공유된 책임과 권리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으면서 하나의 중심적이고, 지배적인 권력을 중심으로 조직된 국제관계'<sup>49)</sup>로 정의된다. 그에 따르면 계서체계 내의 국가들은 서로의 행위에 대해 예견할 수 있는데, 이는 국가의 선호와 의도에 대한 정보는 물론, 공유된 경험과 오랜 역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런 공유된 기대는 안보딜레마를 줄일 수 있게 된다. 또 Kang은 계서체계와 헤게모니를 구분하고 있는데, 헤게모니는 한 국가가 지배적이면 그 체제 내에 있는 다른 국가들은 여기에 도전할 수 없는데, 헤게모니에 대한 이전의 연구들은 체제안정과 안보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국제체제의 형성과 교역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계서체계는 체제 내에 있는 모든 국가에 적용되며, 종속국가들에게 실질적인 자율이 보장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헤게모니는 억압적인 방식을 동원하기 때문에 체제 내의 종속국가들에 대한 자율성이 제한적이지만, 계서체계의 경우 체제안정의 대가로 체제 내의 종속국가들이 자율성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계서체계에서는 지배적인 국가에 대해 힘의 균형을 추구하기보다 편승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이로 인해 체제 안정이 유지될 수 있게 된다. 그는 동아시아의 국제질서가 계서체계로 회귀할 경우, 결과적으로 이 지역은 안정을 찾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동아시아 국제관계는 국가들 간에 공식적으로는 계서체계를 강조하고 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상당한 수준의 평등을 구가하고 있다.<sup>50)</sup>

Kang이 주장하는 이런 계서체계는 물리적 억압을 통해 헤게모니를 행사하는 패도와는 달리 도덕과 인의를 바탕으로 상대의 동의를 끌어내 자발적인 복종을 이끌어 낸다는 왕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문홍화(門洪華)는 계서체계 하에서 도덕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이 바로 왕도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그는 “예(禮)는 천하를 동심원인 계서체계로 보는 것이며, 동심원이 미치는 곳까지 계서체계가 형성되는데, 이것이 과거 중국과 주변국가들 간에 형성됐던 조공체계이며, 이런 조공체계는 지배국가의 도덕적 인의에 의해 통치되는데 이것이 바로 왕도이다.”<sup>51)</sup>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 왕도정치를 주장한 맹자는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가엾게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고대 선왕들도 다른 사람들을 가엾게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가엾게 여기는 인정을 펼 수 있었다. 다른 사람들을 가엾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면 백성들을 가엾게 생각해 인정을 펴게 되고, 이럴 경우 천하를 통치하는 것은 손을 뒤집는 것처럼 쉽다.”<sup>52)</sup>고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왕도의 실현은 곧바로 계서체계의 구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왕도는 백성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47) David C. Kang, “Getting Asia Wrong: the Need for New Analytical Frameworks”, *International Security*, Vol.27, No.4, Spring 2003, p.66.

48) Amitav Acharya, “Will Asia’s Past be Its Future?”, *International Security*, Vol.28, No.3, Winter 2003/04.

49) David Kang, “The Theoretical Roots of Hierarchy in International Relations”,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58, No.3, September 2004, p.339.

50) David Kang, “Getting Asia Wrong”, p.67.

51) 門洪華, 《構建中國大戰略的框架》, 177쪽.

52) 孟子, 《公孫丑章句上》, 59쪽.

그들을 가엾게 여기는 마음을 갖고 도덕으로 설득을 통해 동의를 얻는 과정이다. 따라서 송인창은 왕도와 패도의 차이와 관련, “왕도는 인의도덕으로 백성들을 감화 심복시키는 정치이고, 패도는 무력, 경제력, 정치권력 등으로 백성들을 굴복시키는 정치이다. 패도는 힘과 강제를 신앙처럼 생각하는 정치이고, 왕도는 덕과 백성들의 자유의지에 의한 복종을 통하여 하늘의 뜻을 만드는 정치이다.”<sup>53)</sup>고 강조한다.

왕후이는 왕도정치를 제국에 의한 덕치(德治)라고 분석한다. 그에 따르면, 민족국가와 제국의 이분법적인 분류와 제국을 폐쇄적이고 전근대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된 것은 서구적 관점에 불과하며, 중국적 제국은 혼합적이고, 비제국적인 특징을 갖고 있으며, 도덕정치를 구현한 것이라고 강조한다.<sup>54)</sup> 결론적으로 계서적 질서 속에서 왕도를 구현하는 것은 국제관계에서 중국이 추구하는 이상체(ideal type)로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계서체계와 중국의 외교전략

국제질서에서 계서체계를 새롭게 구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조건은 주변 국가들이 신흥강국을 견제하기보다 편승할 경우이다. 신흥강국의 부상을 막기 위해 주변 국가들이 봉쇄 혹은 균형전략을 선택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계서적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신흥강국은 억압적인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억압적 수단을 동원한다는 것은 주변 국가들이 신흥강국을 위협으로 느껴 균형전략을 채택하도록 만들게 되며, 이는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여지를 좁히게 된다. 당연히 중국이 추구하는 왕도적 계서체계와도 거리가 멀다. 따라서 강대국으로 부상하여 왕도적 계서질서를 구축하려고 노력하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억압적인 수단이 아닌 동의를 기반으로 할 필요가 있으며,

53) 송인창, <맹자, 왕도사상의 체계>, 《동양철학연구》제17집, 1997, 6-7쪽.

54) 汪暉, 《現代中國思想的興起》上卷(北京: 三聯書店, 2004), 23-47쪽.

이를 위해서는 주변 국가들이 균형이 아닌 편승을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주변 국가들이 신흥강국에 대해 편승전략을 선택하는 경우는 첫째, 신흥강국이 위협적이지 않고, 둘째 신흥강국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이다. 월츠(K. Waltz)는 세력균형이론을 통해 일반적으로 국가들은 강대국의 위협에 맞서 균형전략을 채택하지 편승전략을 채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국가의 목표가 힘의 극대화에 있다면 편승이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지만, 국가의 최고 목표가 힘의 극대화가 아니라 생존이고, 힘은 그와 같은 생존에 필요한 수단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가들은 편승이 아니라 균형을 택하게 된다.<sup>55)</sup> 세력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권력은 약한 국가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약한 국가들이 그들의 입지를 강화하도록 만들게 된다. 월츠의 세력균형이론을 발전시킨 월트(S. Walt)는 위협균형이론을 통해 국가들이 동맹을 맺는 이유는 한 국가나 혹은 동맹세력이 매우 위협적일 때, 즉 위협의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며, 동맹의 수준은 한 국가 다른 국가에 대해 느끼는 위협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한다.<sup>56)</sup> 다시 말해 월트에 따르면 강한 국가라고 해서 조건없이 균형전략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국가 혹은 동맹일지라도 그 세력이 위협적일 경우 이에 대항해 국가들이 균형을 선택하게 된다. 또 머스탄두노(M. Mastanduno)는 위협균형이론에 입각해 주변 국가들이 강대국에 대해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우호적인 태도를 견지할 경우 세력균형이론에서 주장하는 것보다 강대국의 지위는 더욱 오래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sup>57)</sup>

이런 균형론자들의 주장과 달리 스웰러(R. Schweller)는 국가들은 균형보다 편승전략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한다.<sup>58)</sup> 그는 국가들이 균형이나

55) Kenneth N. Waltz, “Structural Realism after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Vol.25, No.1, 2000, p.29.

56) Stephen M. Walt, “Alliance Formation and the Balance of World Power”, *International Security*, Vol.9, No.4, Spring 1985, pp.8-9.

57) Michael Mastanduno, “Preserving the Unipolar Moment: Realist Theories and U. S. Grand Strategy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Vol.21, No.4, 1997, p. 60.

58) Randall L. Schweller, “Bandwagoning for Profit”, *International Security*, Vol.19, No.1, 1994, p.74.

편승전략을 선택하는 이유로 균형론자들이 안보적 측면만을 고려한 것과는 달리 다양한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균형전략의 목표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가치의 보호와 보존에 있지만, 편승전략의 목표는 바라던 것을 획득하기 위한 확장에 있다고 주장한다. 즉, 균형전략이 손실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 편승전략은 이익의 확보를 위한 것이 되며, 따라서 주변에 뚜렷한 위협이 존재할 경우, 균형전략이 요구되며, 편승전략은 불필요한 것이 된다.

국가들이 균형을 선호하는지 편승을 선호하는지 문제와 관련 이처럼 연구자들마다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점은 강대국의 신분을 유지하거나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주변 국가들이 균형보다 편승전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주변 국가들이 균형전략을 채택하지 않도록 스스로 우호적인 태도를 견지해 신흥강국의 부상을 막거나 혹은 신흥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주변 국가들이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편승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해 아시아지역에서 계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벌이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간접적인 방식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물음을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중국은 주변 국가들이 자신을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 어떤 전략을 실행하고 있는가? 또 중국은 주변 국가들이 균형보다 편승을 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 모두 정치군사 및 경제적인 측면과 밀접히 연관돼 있지만, 이 글에서는 편의상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주로 높은 수준의 정치(high politics)가 요구되는 안보 군사적 측면,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주로 낮은 수준의 정치(low politics)가 요구되는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인 주변 국가들이 자신을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도록 하는 부분과 관련, 중국은 안보, 군사,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의도적이든 혹은 의도적이지 않든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군사력분야에서 주변 국가에 가장 위협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중국의 핵전략을 살펴보면, 중국은 60년대 이후 핵

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는다(no-first-use policy)는 정책에 기반을 둔 최소한의 억지력(minimum deterrence) 정책을 추구해 왔다. 물론 중국이 이런 정책을 추진한 배경에는 당시 강대국에 비해 취약한 중국의 핵전력이라는 현실적 고려가 담긴 것으로, 울만(Richard H. Ullman)은 이를 핵 강대국에 대한 중국의 핵공격은 자살행위에 비유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sup>59)</sup> 그러나 이런 현실적 고려 외에도 중국의 전략문화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당시 중국의 핵개발 및 전략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라는 손자(孫子)의 전략적 사상에 영향을 받은 마오쩌둥(毛澤東)에 의해 수립되고 실천됐는데,<sup>60)</sup> 이는 '핵개발에 성공하더라도 핵무기는 많이 가질 필요가 없다.'는 그의 최소 억지전략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주변 국가에 위협을 주지 않고 상대의 핵공격을 저지할 수 있는 최소한 핵전력을 보유하겠다는 이런 중국의 핵전략은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정책과 함께 일관되게 추진돼 왔다.<sup>61)</sup>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최소한의 억지력 전략에서 적의 어떠한 핵공격에 대해서도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제한적 억지력(limited deterrence)을 보유하려는 정책전환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sup>62)</sup> 현실적으로 아직 그런 능력은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up>63)</sup> 최소한의 억지력 혹은 제한적 억지력은 모두 방어적 개념에 비롯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핵전력은 주변 국가에 대한 위협을 최소한으로 줄이는데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중국이 향후 핵

59) Richard H. Ullman, "No First Use of Nuclear Weapons", *Foreign Affairs*, Vol.50, No.4. July 1972, p.669.

60) Litai Xue, "Evolution of China's Nuclear Strategy", in John Hopkins and Weixing Hu (eds.), *Strategic Views from Second Tier: Nuclear Weapons Policies of France, Britain, and China*(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1995), pp.170-171.

61) Robert A. Manning, Ronald Montaperto, Brad Roberts, "China, Nuclear Weapons, and Arms Control: A Preliminary Assessment",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00, p.31. <http://www.cfr.org/content/publications/attachments/china.pdf>, 검색일 2005년9월23일.

62) Alastair Iain Johnston, "China's New 'Old Thinking': The Concept of Limited Deterrence", *International Security*, Vol.49, No.1, p.5.

63) Paul H. B. Godwin, "China's Nuclear Forces: An Assessment", *Current History*, Vol.98, No.629, September 1999, p.265.

전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잠재적인 위협요소를 갖고 있지만, 현 단계에서 중국의 핵전력은 주변 국가에 외형적으로 혹은 실질적으로 큰 위협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방어적 핵전략은 미국의 핵전략이 일방주의로 선회하고 있는 현실과 뚜렷이 대비돼 그 전략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이 사실이다.<sup>64)</sup>

주변 국가에 위협적으로 인식되지 않으려는 중국의 노력은 외교정책에서도 나타나는데, 개혁개방 이후 중국외교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도광양회(韜光養晦)와 유소작위(有所作爲)는 대표적이다. 이런 전략은 후진타오를 중심으로 한 제4세대 지도자들에게도 화평굴기(和平崛起)라는 또 다른 용어로 이어지고 있다. 도광양회와 화평굴기 등과 같은 외교정책은 경제발전이라는 중국의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변 국가들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전략에서 비롯됐다.

두 번째 질문인 주변 국가들이 편승할 수 있도록 만드는 중국의 노력과 관련, 태국 출라롱콘대학(Chulalongkorn University) 교수인 Kusuma Snitwongse는 “중국은 자신의 경제발전으로 인해 주변 국가들이 이를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점을 인식하고, 중국의 경제발전이 주변 국가들에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sup>65)</sup>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한 사례로서 중국이 낙후한 아세안국가들에 대해 벌이는 경제적 지원과 아시아금융위기 당시 보여준 중국의 태도를 들고 있다. 실제, 아세안 금융위기 당시 주변 국가들이 자국의 화폐를 평가절하 함에 따라 중국의 수출경쟁력은 도전에 직면하게 됐는데, 이로 인해 중국은 인민폐의 평가절하에 대한 강한 유혹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중국은 이런 유혹을 뿌리쳤는데, 중국의 이런 환율정책으로 인해 주변 국가들은 위기 극복에 도움을 받았으며, 이는 금융위기를 겪고 있던 국가들이 중국을 신뢰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했다. 이에 대해 왕이저우는 “만약 당시에 중국이 인민폐

를 평가절하 했다면, 주변 국가들을 방어막으로 이용했다는 평가와 함께, 중국 위협론을 강화시켰을 것이다.”<sup>66)</sup>고 평가했다. 중국의 환율정책으로 인해 금융 위기를 겪고 있던 주변 국가들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받은 사례에서 주변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 균형이 아닌 편승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중국의 노력은 아세안자유무역지대(ACFTA)의 설립을 추진하면서 단기적인 손해를 감수한데서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경쟁력이 약한 농업제품들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관세철폐를 약속했지만, 경쟁력이 앞선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철폐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손해를 감수했다.<sup>67)</sup> 이외에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아세안의 규범을 대폭 수용하는 전격적인 조치를 통해 이들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중국에 편승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주기도 했다.

이처럼 중국은 정치군사 및 경제적 측면에서 주변 국가들이 중국을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게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주변 국가들이 편승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계서체계의 하위체계 내에서 계서체계를 형성하는데 있어 또 다른 변수는 기존의 강대국과 신흥강국 간의 관계에 있다. 미국을 지배국가로 하는 단극체제와 지역적 계서체계의 지배국가로 부상중인 중국과의 관계에서 상호 간에 균형전략을 채택할 것인지 편승전략을 택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하다. 램키가 개념화한 복수의 계서체계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선 지역단위의 하위체계에 대한 강대국의 간섭을 가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램키는 강대국이 하위단위의 계서체계에 개입하는 이유는 강대국의 이해관계와 직결될 때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sup>68)</sup> 동북아의 경우, 미국의 개입은 북핵문제를 비롯해 대만문제 등에서 빈번히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64) 미국 핵전략의 일방주의적 경향은 Sharad Joshi, “Unilateralism and Multilateralism: Analysing American Nonproliferation Nuclear Policy”, *World Affairs*, Vol.167, No.4, Spring 2005 참조.

65) Kusuma Snitwongse, “A New World Order in East Asia?”, *Asia-Pacific Review*, Vol.10, No.2, 2003, p.38.

66) 王逸舟, 《全球政治和中國外交》, 147쪽.

67) Framework Agree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hnom Penh, Cambodia, 2002년11월5일, <http://www.aseansec.org/13196.htm>, 검색일 2005년9월28일.

68) Douglas Lemke, *Regions of War and Peace*, p.51.

있는데, 따라서 현시점에서 중국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계서체계를 원활히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은 완벽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동북아시아 지역과 달리 동남아시아의 경우 중국의 영향력은 그 어느 때 보다 투사력(projection)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와 관련, Martin Stuart-Fox의 분석에 따르면 이 지역은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전략적으로 내륙국가인 중국이 해양국가들에 대항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으로 중국으로서 는 전략적 요충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 이 지역은 미국의 영향력이 여전히 동북아와 인도의 영향력이 지배적인 남아시아, 러시아와 경쟁해야 하는 중앙 아시아와 달리, 빠른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중국의 연안지역과 인접해 있으며, 역사적으로 많은 중국인들이 이주해 살면서 중국의 영향력이 지속돼 왔던 지역이기도 하다.<sup>69)</sup> 이런 이유로 이 지역은 중국이 계서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곳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이런 지정학적 전략과 달리 중국의 미국에 대한 전략은 전반적으로 균형보다 편승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sup>70)</sup> 미국에 대해 균형전략을 채택하기에는 아시아지역의 질서를 구축하고 있는 미국적 헤게모니가 아직도 단단한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아시아지역의 지배국가로 부상할 필요성은 물론 초강대국인 미국의 견제를 받지 않기 위해 미국과 아시아 주변 국가들에 대해 편승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이는 스웰러가 지적했듯이 중국이 바라는 것을 획득하기 위한 확장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아시아지역에서 중국이 구축하기를 희망하는 왕도적 계서체계의 구축은 초강대국인 미국이라는 존재와 아시아지역의 헤게모니구도를 감안 할 때 아직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9) Martin Stuart-Fox, "Southeast Asia and China: The Role of History and Culture in Shaping Future Relations", *Contemporary Southeast Asia*, Vol.26, No.1, p.117.

70) Peter Van Ness, "Hegemony, Not Anarchy: Why China and Japan are not Balancing US Unipolar Power",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Vol.2, No.1 (2002); Alastair Iain Johnston, "Realism and Chinese Security Policy in the Post-Cold War Period", in Ethan B. Kapstein and Michael Mastanduno (eds.), *Unipolar Politic: Realism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fter the Cold Wa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9).

## 5. 결론: 동의에 의한 계서체계

중국의 부상은 국제질서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는 연구자들은 없어 보인다. 다만 그 변화의 폭과 넓이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의 입장에 따라 다양하게 개진되고 있다. 현실주의자들은 중국의 부상은 미국과의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지만, 중국은 헤게모니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의 예봉을 피해가고 있다. 문화현실주의자들은 중국의 이런 대외정책은 상징적인 것이며, 실질적으로 중국은 헤게모니를 확보하기 위해 계산된 전략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적 국제관계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중국적 함의를 가진 전략문화의 실체를 인정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현실주의도 자유주의도 아닌 중화권이론으로 중국의 전략문화를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런 반론의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헤게모니의 중국적 함의는 물리적 억압에 의한 지배를 전제로 하고 있다. 헤게모니의 서구적 의미가 갖는 동의적 측면과 억압적 측면 가운데 억압적 측면을 부각시킨 중국적 헤게모니의 함의가 갖는 것은 상당히 전략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헤게모니적 지배를 가능하게 만드는 권력을 지나치게 물리력에 의존해 온 기존의 국제관행도 이런 이분법을 낳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물리력에 의존하는 경성권력이 아닌 동의에 의존하는 연성권력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는데, 연성권력의 중국적 함의는 왕도와 비견될 수 있다. 그러나 패권과 대치되는 지점에 있는 왕권, 혹은 왕도는 계서체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 강한 중국에 의한 계서질서로 인해 아시아지역은 평화로울 수 있다는 분석은 이런 중국적 전략문화를 잘 대변하고 있다. "중국의 주변 국가들은 중국을 압박(constraint)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sup>71)</sup>

는 시갈(Gerald Segal)의 도전적인 문제제기도 이런 중국의 전략문화에서 그 해답의 일부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주변 국가들이 중국에 의해 구축된 동맹에 의한 계서체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이들 국가들을 과거처럼 오랑캐로 간주하고 물리력을 동원할 것인지 여부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좀 더 시간을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기존의 국제질서 속에서 중국은 초강대국인 미국의 개입을 고려할 수밖에 없으며, 더구나 미국과의 헤게모니경쟁이 어떻게 귀착될 것인지 전망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선부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작금의 미국처럼 단극질서의 정점에 있을 경우 중국의 일방주의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이는 중국의 전략문화가 도덕적 우월성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일방주의 외교정책도 외형적으로 민주와 인권 등을 인류 보편적 가치로 인식해 이를 다른 국가들에게 강요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맹을 통해 헤게모니를 확보하고, 확보된 헤게모니를 통해 계서체계를 구축하고, 이렇게 구축된 국제질서를 왕도로 인식하는 중국의 전략문화가 아시아지역에 던지는 전략적 함의는 분명해 보인다.

#### <參考文獻>

- 김유은, <국제정치 분석개념으로서의 패권: 채검토>, 《한국정치학회보》, Vol.26, No.3, 1993.
- 김진영, <세계화와 헤게모니>, 《한국정치학회보》, Vol.32, No.1, 1998.
- 송인창, <맹자, 왕도사상의 체계>, 《동양철학연구》, 제17집, 1997.
- 신육희, <다자주의의 동아시아 적용의 문제>, 《한국과 국제정치》, Vol.13, No.1, 1997.
- Acharya, Amitav, "Will Asia's Past be Its Future?", *International Security*, Vol.28, No.3, 2003/04.

- Arrighi, Giovanni, *Adam Smith in Beijing*, New York: Verso, 2007.
- Buchanan, Paul G., "Note sulla 'Escuela Italiana': Using Gramsci in the Current International Moment", *Contemporary Politics*, Vol.6, No.2, 2000.
- Carlson, Allen, "Helping to Keep the Peace(Albeit Reluctantly): China's Recent Stance on Sovereignty and Multilateral Intervention", *Pacific Affairs*, Vol.77, No.1, 2004.
- Evans, Thammy, "The PRC's Relationship with ASEAN Regional Forum", *Modern Asian Studies*, Vol.37, No.3, 2003.
- Garrison, Jean A, "China's Prudent Cultivation of 'Soft' Power and Implications for U. S. Policy in East Asia", *Asian Pacific: An American Review*, Vol.32, No.1, 2005.
- Gilpin, Robert,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 Goldstein, Avery, "The Diplomatic Face of China's Grand Strategy: a Rising Power's Emerging Choice", *China Quarterly*, No.168, 2001.
- Hughes, Christopher R., "Nationalism and Multilateralism in Chinese Foreign Policy", *The Public Review*, Vol.18, No.1, 2005.
- Ikenberry, G. John and Charles A. Kupchan, "Socialization and Hegemonic Power",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44, No.3, 1990.
- Johnston, Alastair Iain, *Cultural Real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 \_\_\_\_\_, "Is China a Status Quo Power?", *International Security*, Vol.27, No. 4, 2003.
- Kang, David C., "Getting Asia Wrong: the Need for New Analytical Frameworks", *International Security*, Vol.27, No.4, 2003.
- \_\_\_\_\_, "The Theoretical Roots of Hierarchy in International Relations",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58, No.3, 2004.
- Keohane, Robert and Joseph Nye, *Power and Interdependence*,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97.
- Kuik, Cheng-Chwee, "Multilateralism in China's ASEAN Policy", *Contemporary Southeast Asia*, Vol.27, No.1, 2005.
- Lake, David A., "The New Sovereign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71) Gerald Segal, "East Asia and the 'Constraint' of China", *International Security* Vol.20, No.4, Spring 1996, p.108.

- Studies Review*, Vol.15, No.3, 2003.
- Lemke, Douglas, *Regions of War and Pea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 Mastanduno, Michael, "Incomplete Hegemony: The United State and Security Order in Asia", in Muthiah Alagappa (ed.), *Asian Security Order: Instrumental and Normative Feature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3.
- \_\_\_\_\_, "Preserving the Unipolar Moment", *International Security*, Vol.21, No.4, 1997.
- Mearsheimer, John J.,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W. W. Norton and Company, 2001.
- Moon, Chung-in and Chaesung Chun, "Sovereignty: Dominance of the Westphalin Concept and Implications for Regional Security", in Muthiah Alagappa (ed.), *Asian Security Order* 2003.
- Nye, Joseph, "Soft Power", *Foreign Policy*, 1990.
- Organski, A. F. K., *World Politics*, New York: Alfred A. Knopf, 1961.
- Ramo, Joshua, *The Beijing Consensus*, The Foreign Policy Centre, 2004.
- Ruggie, John G., "Multilateralism: the Anatomy of an Institu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46, No.3, 1992.
- Schweller, Randall L., "Bandwagoning for Profit", *International Security*, Vol.19, No.1, 1994.
- Scobell, Andrew, *China and Strategic Culture*, The Strategic Studies Institute, 2002.
- Shambaugh, David, "Containment or Engagement of China? Calculating Beijing's Responses", *International Security*, Vol.21, No.2, 1996.
- Sharpe, Samuel, "An ASEAN Way to Security Cooperation in Southeast Asia", *The Pacific Review*, Vol.16, No.2, 2003.
- Ulman Richard H., "No First Use of Nuclear Weapons", *Foreign Affairs*, Vol.50, No.4, 1972.
- Walt, Stephen M., "Alliance Formation and the Balance of World Power", *International Security*, Vol.9, no.4, 1985.
- Waltz, Kenneth,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Boston: McGraw-Hill, 1979.
- \_\_\_\_\_, "Structural Realism after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Vol.25, No.1, 2000.

- Wang, Hongying, "Multilateralism in Chinese Foreign Policy: the Limits of Socialization", *Asian Survey*, Vol.40, No.3, 2000.
- Wang, Jianwei, "Chinese Perspectives on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Asian Perspective*, Vol.22, No.3, 1998.
- Xue, Litai, "Evolution of China's Nuclear Strategy", in John Hopkins and Weixing Hu (eds.), *Strategic Views from Second Tier: Nuclear Weapons Policies of France, Britain, and China*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 1995.
- 胡錦濤, "高舉中國特色社會主義偉大旗幟, 為奪取全面建設小康社會新勝利而奮鬥: 在中國共產黨第十七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 2007년10월15일.  
http://cpc.people.com.cn/GB/64162/64168/106155/106156/6430009.html.  
검색일 2007년11월10일.
- 門洪華, <構建中國大戰略的框架: 國家實力, 戰略概念與國際制度>,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5.
- 孟子, <公孫丑章句上>, <孟子>, 太原: 山西古籍出版社, 1999.
- 錢其琛, <發展合作才能獲得和平與繁榮>, <人民日報>, 1997년12월6일.
- 王暉, <現代中國思想的興起>, 上卷, 北京: 三聯書店, 2004.
- 王緝思, <美國霸權的邏輯>, <美國研究>第3期, 2003.
- 王逸舟, <全球政治和中國外交>,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2003.

## &lt;Abstract&gt;

On defining hegemony, realists have excessively brought the focus into material or coercive power based on a rank. Contrary to this realist's view, this paper explores the Chinese perspective on hegemony emphasizing not a rank but behavior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West, while hegemony is defined as a kind of rank or ability of states, the Chinese, based on the view of a behavior, makes a distinction between the coercive hegemony to exercise power depending on material power resources and the consenting hegemony to exercise power depending on cultural power resources: the former is called badao (rule by force) and the latter wangdao (rule by virtue). This paper also goes on that China is trying to seek the consenting hegemony through multilateralism in



Asia, and the country recognizes multilateralism as a useful platform that can be utilized toward its goals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 sum, this paper will show that the consenting hegemony China is seeking has entrenched the feature of hierarchic order.

Key Words: China, Hegemony, Coercive, Consenting, Multilateralism, Hierarchy

|           |           |           |            |            |
|-----------|-----------|-----------|------------|------------|
| 원고접수일     | 심사일정      | 1차수정      | 게재확정       | 출 간        |
| 2009.8.21 | 2009.9.17 | 2009.10.6 | 2009.10.12 | 2009.10.30 |